'정부 합동 한미 FTA 2차 공청회'가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나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낭독하던 도중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이 연설을 가로 막으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美 FTA 공청회 파행

시민·농민단체 거세게 반발…설전·몸싸움

공청회 중단·협정문 공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정부 합동 한미 FTA 2차 공청회'가 27일 서울시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나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파행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농민·시민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전 공청회 시작전부터 '한미 FTA 통합협정문 공개', '졸속 공청회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특히 농민·시민 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공청회 발표자를 일방적으로 선정, FTA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반발, 공청회를 중단하고 새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시위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단상에 올라가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협정문을 공개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욕설을 하는등 오후까지 정부측과 농민·시민 단체간 대립이 계속됐다.

농민·시민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개회시각인 오전 9시40분 김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시작하자 "여론을 무시한 FTA 결사 반대한다"면서 연설 진행을 막았다.

특히 김 수석대표가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미래전략"이라고 발언하자 농민·시민 단체 회원들은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FTA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 공청회장에는 일촉즉발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상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김 수석대표를 향해 "당신이 (농민을 죽이는) 쌀 협상을 주도하지 않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김 수석대표는 "나는 아니다"고 부인하는 등 양측간 설전과 몸싸움이 오갔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으며 공청회 개최 절차도 바로 하루전인 어제 공개했다"면서 "주제발표를 할 토론자들도 거의 모두 FTA 찬성론자 일색"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농민·시민 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전 공청회의 정회를 선언한뒤 오후 들어 노동, 환경 등 분야의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노동문제를 다룬다면서 노동단체 출신 발표자도 선정하지 않는게 무슨 공청회냐"면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폐회 예정시간인 오후 5시까지 공청회 진행에 항의하는 농민·시민 단체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

대만 천수이볜 총통 파면안 부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에 대한 파면안이 부결됐다. 대만 입법원은 국민당과 친민당 두 야당이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의, 상정한 총통 파면안에 대해 27일 오전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19표, 무효 14표로 파면안 부결을 선언했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이로써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가 뇌물 스캔들에 휩싸이고 사위 자오젠밍(趙建銘)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만 헌정사상 첫 국민소환 대상 총통이 될 위기에 몰렸던 천 총통은 다시 한번 난국을 탈출했다.

이날 파면안 결의에는 입법원 221석 정수 가운데 3분의2(148표) 이상이 필요했으나 민진당 의원 87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대만단결연맹 12명이 모두 기권표를 던져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야당의 파면안 및 국민소환 투표 추진으로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인 여권이 국가혼란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등에 업고 행동을 통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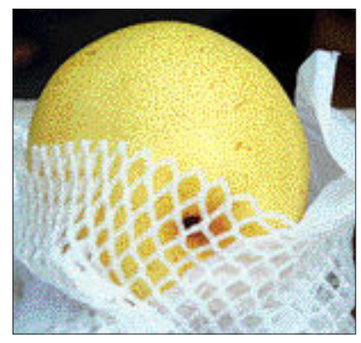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비약하는 동중국 현장을 가다 〈2〉 농수산 보고 산동성

친환경·고급화로 한국시장 압박

새벽이면 한국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는 중국 산동성. 과장된 말을 뒷받침하듯 산동반도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연태(煙台)시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50분이면 닿는다.

이처럼 한국과 가까운 산동성은 중국 농수산업의 보고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곳에서도 친환경농업에 주력하고 나서 인접한 한국 농수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오이·토마토 시설재배 급증

총면적 15.67만㎢로 남한의 1.5배인 산동성은 평지가 55%를 차지한다. 또 난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해 사계절이 분명하고 연평균 기온 섭씨 11~14도, 연간 최고 강우량은 950㎜로 과수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여기에다 동쪽은 바다로 한반도 서해안과 마주하며 황해와 발해만 사이에 돌출된 형상을 지녀 수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천혜의 농수산업 여건을 지닌 산동성은 최근 시설재배 확대와 친환경농업, 고급 수산물 가공 등으로 한국의 농수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산동성의 대표적인 시설원예 재배지인 연태시 근교의 드넓은 평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비닐하우스가 들어선다. 중국 전체의 시설재배는 지난 1990년 14만ha에서 10년이 채 안된 1998년 90만ha로 늘어나는 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동 지역 시설재배단지에서는 일본시장을 노려 오이, 토마토, 양파, 당근은 일본 품종을 도입 재배중이다. 이 곳에서는 일본 상사와 제휴하여 절임용 무나 당근, 파 등을 재배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생산과 소비구조도 다양하다. 엄격한 일본의 품질기준으로 인해 수출품 합격률은 40~5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중국 내 품질인증 제도에 따라 질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산동성 채소가 일본에 수출되면 그만큼 한국산 수출시장을 잠식하게 돼 해당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나주특산 신고·황금배도 재배

중국 제일의 사과산지인 산동성에서는 최근 연태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나주특산인 신고, 황금배를 재배하고 있어 중국산 과일 수입 빗장이 풀리면 한국 과수농가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산동성 현지에는 한국인이 투자해 운영되고 있는 배 재배단지가 29군데로 면적은 300만~400만 평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연태 일대에 심어진 한국산 품종의 배 과수원에는 조그만 열매마다 종이봉지가 조심스럽게 씌어져 수확철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998년부터 산동성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눈을 떠 유기·저농약 사과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과일과 채소에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채소농가들은 친환경농법을 통해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산은 이제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수산물 가공시장 활황

산동성은 바다와 인접한 터라 수산업 역시 활기차다. 각종 어선어업은 물론 가공업까지 중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최근 전체 종업원이 5천여 명인 산동성 영성시 '산동적산수산집단유한공사'를 방문했을 때 정갈한 작업장에서는 일본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 새우와 꽃게, 생선류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FDA'(미국 식품의약안전청) 검증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까지 받아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물량과 저가공세로 한국 농수산업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국. 한 술 더 떠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을 점령하려는 중국에 맞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중국 산동성 영성시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청정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다. 또 산동성 연태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장에서는 한국 특산인 나주 배(사진 위)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